
제2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1958년10월16일(단기4291년) 상오10시30분

의사일정

1. 제1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개선건의
-

부의된안건

1. 제1차회의록통과 ... 1面
 2. 보고사항 ... 2面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개선건의 ... 5面
-

(10시 30분 개의)

○의장 박명준; 조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각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출석의원은 37인
으로서 제25회 2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회의회의록낭독이 있겠습니다.

1. 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김형익;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이상이올시다.

○의장 박명준; 이제 회의록이 끝났습니다.

낭독 끝났습니다. 혹 착오된점이나 누락된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없소.」 하는이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회의록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의원을 지명
합니다.

이익렬의원 노승환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에서
먼저 보고해주실 의원은 문학우의원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 사무처의 보고는 없습니다.

2. 보고사항

○문학우 의원; 모처럼 의회가 열렸기때문에 보고드릴 말씀
이 많습시다마는 오늘은 간단히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
다.

부시장께서 얘기를 잘 들으셨다가 오늘 이시각부터라도 엄
격히 지시를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간에와서 청사내에 물품 도난사건이 빈번한데 특히 이
의회내의 전화기 도난사건이接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범위에서 건설위원회에서 두대 사회보
건위원회에서 세대 재정위원회에서 한대 부의장실에서 한대
의장실에서 한대 이렇게 통 여덟대 도난을 마진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듣자니까 숙직과장을하는 사람이 자기집에
가서 누어자고 밑의 계장이나 직원을 시켜가지고 자기집에가
서 자고있단말이에요.

심지어는 계장이 계원에게 술을 사주고 좀 부탁한다 이렇

게하고 자기집에가서 누워자는 사람이있다 그말이에요.

이렇게 숙직책임자들의 무책임으로 시세로서 구입한 기구만 소모된다고하면 용납될수없는 행위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숙직원이 자기의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만일 야간에 이러한 도난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숙직 책임자를 문책할수있는 태도를 집행부에서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점 한가지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오늘 의제가 교육위원 선거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사항이 끝나면 곧 교육위원 선거를 하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이것이 이따가 교육위원 선출을 선포하고 난뒤에 얘기를 해야할 문제인지 또는 이 보고사항에서 얘기를 해야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위 올라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려두어야 되겠습니다.

5명의 교육위원 보선을 하는데 무려 50명에 가까운 입후보자들이 난립을 하고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입후보한 이분들은 인격이 고명하시고 훌륭한 민주주의 교육을 지향하는데 지대한 노력과 연마를 하셨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인격적으로나 양식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숭상하고 흠모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읍니다마는 개중에는 자기의 인격에 과대망상해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교육위원입후보자가 있다는것을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실례로서는 중구에서 입후보한 모 교육위원 입후보자가 시의원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것입니다.

한가지 실례로서는 자기가 가지고있는 금반지를 시의원들

앞에 내놓고 자극을 하고 심지어는 인격에 손상되는 야비스러운 언동을 했다고 하는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것이고.

(「의장 개인 인격에관한일이요.」 하는이있음)

여보 이것이 무슨 개인인격이란 말이요.

(「인신공격이요. 안되요.」 하는이있음)

(장내소연)

어째 인식공격이란 말이요 내가 사람을 지적했단말이요.

그뿐이 아니고 8월 열나흘날 양력 9월26일날입니다.

다방에서 제3자 시민이 있는 가운데에서 시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고있다는것을 말했습니다.

이거우리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마당에 있어서 자기의 인격만 높이고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이런 행위는 민주교육을 지향하겠다고 하는 교육위원 입후보자로서는 도저히 있을수없는 행위라고 보기때문에 앞으로 선출하는 또한 우리가 거행하는 교육위원 선거에 있어서 공정과 냉정을 기해주십사 하는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박명준; 그러면 오늘 아침에 보고사항은 이로써 끝났습니다.

(「의장」 하는이있음)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박수형 의원; 아까 문학우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이렇든 저렇든 의원 각자가 교육위원선거를 벌써 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다 알고있는 일이니까 투표할적에 그것을 잘 가려서 투표하면 그만일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상 한마디 하려고 하는것은 어찌든 우리가 유감이없이 되도록이면 전원 출석한연후에 이 교육위원을 명

랑하게 선거하기위해서 오늘 이 3항을 처리하되 되도록이면
전원 참가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30분 휴회를 해가지고 인
원을 독촉하고 또한 민주당측에나 시정구락부측에서도 혹시
공천이라고할까 해가지고 또한 어떠한 인물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대체적인 여론이 합치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30분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사진행상 제안하는 바입니다.

11시반에……

(「이의없습니다。」 하는이있음)

○의장 박명준; 이의없지요?

그러면 11시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깐 휴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 휴회)

(11시 35분 속개)

○의장 박명준; 현재 재석의원이 42명이 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의제로되어있는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개선의건

이제 본건에대해서 발언요청하신 김진용의원 말씀해 주시
겠습니다.

○김진용 의원;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발언요청을 한데대해서
의아하시겠지만 여러분 들으시기에 괴로운 얘기도 아니고 장
황한 얘기도 아닌 까닭에 교육위원선출에있어서 제의건을 말
씀드려서 여러분과같이 동감에 뜻을 표했으면 하는 뜻으로
이러한 얘기를 세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얻은것입
니다.

첫째에 말씀하고싶은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아는 일이지만 철저히 이것을 더 복용해가지고 이것을 실현해보자 이런뜻으로 저는 말씀하고 싶은것을 첫째에 교육자치제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나 이것을 우리가 더 밝히고 둘째로 말하면 교육위원회의 임무가 무엇이나 말하면 첫째로는 교육의 민중관리와 민의의 대표 세째로는 사회적 조정이라는것이 교육위원회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해 드리고 셋째로 말하면 교육위원의 자격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자가 교육위원이 되어야 할것이나 하는것을 우리 책임이기 까닭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는데 여기에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위원 여러분 다 잘알고 계신 일이라서 덧붙이기 얘기같아서 재미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물론 교육은 당리당락을 초월해가지고 그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취지는 교육을 민주화 시키기위해서 민중의 손에다 의지해서 그 교육을 민중이 관리하고 장악시킨다는 것이 교육의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困해서 이 교육위원회라고했지 교육의회라고는 안했습니다.

교육의회라고 안하고 교육위원회라고 한것도 그취지가 거기에 있지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위원은 각자가 어느때든지 교육활동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것이 이것이 사실일것입니다.

그러기에 교육위원회라고 한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교육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한 바와같이 교육의 민주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바와같이 이 교육을

맡아서 일할 사람이 이것을 일을 맡어하는 사람을 민중화 시키기 위해서 민중 가운데에서 민중의 손으로 교육위원회이라는것으로 선출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직접 선거를 해야 옳을것입니다.

그럴것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아서 시민 전체에 맡긴다면 혼란만 야기하고 일이 여러가지 어려울것같아서 국가에서는 시의회에다가 이것을 위임해 가지고 시의원에 양심과 양식에 호소해 가지고 책임자를 교육위원에 선출하도록 이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잘 되고 못되는것이 우리의 한 표에 달려있을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시의원 전체의 책임이 여간 중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이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뜻에 어그러지고 또는 시민에게 배신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않을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은 우리가 경계하는것이 이 점에 있다는것을 저는 확실히 간파했습니다.

둘째 말하면 민의의 대표다 즉 그 교육위원이 이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가지고 결코 어느 개인이나 어느 정당이나 어느 당파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 어디까지나 일반 시민의 희망과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고 해서 민의를 나날이 실시하는 교육행정에 반영시켜 주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은 이만한 기개가 있고 또는 이만한 역량이있는 사람이라야 되지 이만한 기개가 없고 이만한 역량이 없는 사람 자기자신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교육위원 될 자격이 없을것입니다.

그러므로 당파심의 강한 사람 이사람은 교육위원에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이있음)

(「토론을 할수없읍니다.」 하는이있음)

(「훈계요. 뭐요.」 하는이있음)

(장내소연)

○의장 박명준; 조용히 해주세요. 김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잘 알아요.」 하는이있음)

○김진용 의원; (계속) 글썽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해요. 분위기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육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훌륭한 적격자를 뽑아서 교육위원을 만들자는 그말이에요.

(장내소연)

(「다알고있소.」 하는이있음)

첫째에 교육위원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되겠습니다.

당파심이 없어야되겠고 기개와 역량이 있고 교육적 식견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큰소리로 얘기하고 싶지않고 간단히 여러분이 시끄럽게 해서 그립니다.

교육기관을 직접으로 상대하는 교육위원이 될려는 여러사람하고 접촉하느니만큼 고결한 인격을 갖고 여러사람에게 존경받고 또는 신망있는 사람이라야 될것입니다.

이것을 교육위원의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까닭에 오늘 제가 여기하고싶은것은 여러분이 30분동안 쉬는동안에 이러한 생각을 하지않었나 이런생각을 해서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있는 이 제일고결하고 인격자 교육위원

을 뽑아주시기를 제의하는것입니다.

(「규칙이요.」 하는이있음)

○의장 박명준; 발언신청하신분이 있는데 규칙발언 하세요.

○장을순 의원; 이사람은 가급적이면 발언을 좀 피해가지고 의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까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마는 그러나 우리 정치의 대선배이신 김진용의원께서 말씀이 규칙상 모순된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이사람이 규칙상 나온 것이 올시다.

어떻게 규칙에 위반되었느냐 하면 현재 교육위원선거에 늘 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거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특정인을 좋다 또는 어느특 정인은 나쁘다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고있는것입니다.

현재 교육위원선거에 있어서는 교육법 시행령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권을 가지고있는 이사람으로서 표만 던지면 그 뿐인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김진용의원의 말씀에 이말씀을 취소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당원은 교육위원이 될수 없다…… 이것 모순된 말씀입니다.

당원이건 아니건 그런 것은 교육위원 입후보제도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47명이 갖고있는 역량의 표를 던지면 그 사람이 승낙하므로써 교육위원이 되는것이 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선거하는 이 찰나에 어느사람은 안된다 하 는 이런 발언을 가지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이 미쳤다고하면 김진용의원께서는 책임지셔야 될것입니다. 해서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기를 당원은 교육위원이 될수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내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자리에 나와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이 교육위원 선거하는데 이러한 발언을 갖다가 무제한 주어가지고 혼란을 가져오지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 의원; 저는 의사진행입니다. 이것 회의를 열어가지고 무엇 규칙이니 무엇이니 기타 모든 발언을 해서 시간을 지연하지말고 어쨌든 의제에 있는것을 즉각 처결방향으로 합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는 그 구역은 을선거구에 있어서는 중구 성동구 또 병선거구에는 성북구 또 정선거구에는 서대문구 마포구 이런 순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구별로 을선거구에 중구하고 성동구가 을선거구로 되어있기때문에 투표방법을 투표용지 두장을 가지고 중구 출신위원하고 성동구출신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요것을 투표용지 두장을가지고 한꺼번에 하지말고 순위로 중구 먼저하고 성동구를 하는 이러한 순위로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연 기명으로 합시다.」 하는이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중구하고 성동구를 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연기명으로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병선거구도 한분을 해야고 정선거구에 있어서는 서대문하고 마포의 또한 두분의 보궐선거를 하니까 이것을 연기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의장께서는 감표위원 두분을 의장이 지명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표 사항에 있어서는 교육법시행령에 명기된바와같이 역시 2차 투표까지에 3분의2이상 득표하면 당선되는 것이로되 만일 3분의2가 못나올 때에는 3차 투표에 가서는 다수득점자로 한다고 명기 되어있으니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즉각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우 의원; 제3항 선포가 되고 이미 박수형의원께서 투표에대한 방식까지 말씀하시고 내려가셨는데 투표로 들어가기전에 역시 이 의회와 관련이 있는 본의원의 의견이기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려서 다행히도 여러분의 동의를 얻는다고하면 그대로 될것이고 여러분이 구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면 다수에 따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의사진행상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이미 아까 김진용선배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다가 여러분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하단하셨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교육은 신성해야만 될것입니다.

특히 민주교육을 지향하겠다고 하는 우리수도서울에 있어서 교육위원으로서 선출되시는분은 인격 또는 인물 모든면에 있어서 지도적 위치를 가져야만 될것입니다.

교육위원으로서 입후보하셨다는 분들의 대개 인물도 보고 보내주신 서한도 저의들이 신중 검토도 해보았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인물도 모르는분이 몇분있어요.

그러니 본의원이 여기에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리고 저하는것은 투표로 들어가기전에 교육위원으로서 입후보하신분들이 여기에 나오셔서 자기의 소견을 얘기할기회를 부여하

자…… 이사람으로서는 인물도 보아야겠고 실지 그네들이 보 내준 학력도 보았기 때문에 미사여구로 현실만을 호도하는 선전문이 여기서 안될것입니다. 여기에서 2·3분 얘기하는 가운데에 인격을파악 할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의원은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이문제에 대하여 동의하겠다는것입니다.

(「투표하세요.」 하는이있음)

○의장 박명준; 감표위원을 의장에게 일임했으니까 감표위원 선출을 하겠습니다.

최종욱의원

김인기의원

두 분으로 지명하니 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광 의원; 잠깐 확인을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시행령23조에 보면 3차투표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차투표는 결선투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결선투표와 성격을 달리한 다수득점자순위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는 최고득점자 두사람만 하는것이아니고 동점인 경우는 추첨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의장 박명준; 그러면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 하실줄 압니다.

그런데 을병정3선거구를 나누어서 구역별로 하는데 중구 성동구에서 두분 성북구에서 한분 서대문구 마포구에서 두분 인데 연기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재석의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6명입니다.

지금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11시 55분 투표개시)

여러분 의원들은 각자 자기의안에서 정좌해주시고 그리고
나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투표완료)

이제 46명의 투표로서 이제 투표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선거구 투표결과를……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환 20표

엄요섭 18표

임종천 14표

권윤주 12표

이계하 6표

박승목 6

길익선 5

구병삭 4

김진구 4

홍경선 2

계 91표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법에 의해서 재석의원 3분지2 즉
31표를 얻어야만 당선권에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에보면 최고
득점자가 20표 올입니다.

그러므로 제2차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12시 30분 투표개시)

○의장 박명준; 제2차투표에 46명 투표로서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수-46매 맞습니다.

조용해 주세요. 이제 제2차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22표

엄요섭 20표

김진구 1표

임종천 20표

이계하 12표

권윤주 13표

구병삭 1표

길익선 3표로 되어서 제2차 투표에도 3분지2수인 32표를 득점치 못했기때문에 제3차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투표에는 역시 그가운데에서 다점자 순위로서 두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12시 55분 투표개시)

오늘 회의는 정각 한시까지인데 시간을 연장해서 선거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 55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46명의 투표가 끝났습니다.

(13시 08분 투표완료)

곧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지 46매 부합됩니다.

(13시 12분 개표완료)

제3차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창환씨 24표

엄요섭씨 23표

임종천씨 22표

권윤주씨 23표

이중 김창환씨는 24표로서 당선된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법에 의해서 엄요섭씨23표 권윤주씨 23표는 동수이기때문에 법규에 의해서 추천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생각해줄 것은 두분이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해주세요.

○조영석 의원; 이제 투표한 결과 동수가 나와서 법에 의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하는 방식은 이것이 보통 일반 선거와 달라서 이것이 하나의 간접적 선거의 방식으로 되었고 그 방식은 선거자체의 근본적인 의미에 입각해서 출마본인들을 보든지 추천하는것이 이상적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근본적 의미에 비추어서 이 추천하는 방식은 감표의원 입회하에 이 봉투에 「당」 「락」 을 써넣은 이것을 면전에 놓고 우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청」 하는이있음)

○의장 박명준;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이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장」 하는이있음)

○의장 박명준; 김의원 말씀하세요.

○김동순 의원; 지금 조영석의원께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찬성합니다마는 세부에 들어가서 좀더 공정을 기할수 있고 좀 그야말로 당락이라는 것을 봉투에 그냥써서 여기에 놓고 하면 그야말로 눈은 가리운다 하더라도 보통사람은 바른손을 먼저 쓰게되는것이 습성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봉투에 넣어서 당락을 써 가지고 이 투표함에 넣어서 최소한도로 접어가지고 여러번 흔들어가지고 할것을 동의첨가 합니다.

(의석에서 ○조영석 의원; 받습니다.)

○의장 박명준; 동의집에 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곧 해주세요.

(「의장」 하는이있음)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문학우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영석의원의 동의에 김동순의원이 첨가 하셨는데 한가지 확실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당락을 써서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당락은 누구한테 주느냐? 그러니 지금 동점자 두분의 이름을 써 넣어서 여직원이 먼저 집으면 그것이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먼저 집는것이 당선이 되는것입니다.

투표함의 두분 이름중 누구하나 먼저 집으면 당선이 되는것이에요.

○의장 박명준; 이제 추천에 의해서 엄요섭씨가 당선되었습니다.

을선거구는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병선거구 동대문구 성북구 올시다.

그러면 투표용지에 하나씩 써주십시오.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나와주십시오.

(13시 30분 투표개시)

이제 병선거구 이제 투표가 끝났습니다.

투표자수는 46인이 올시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42분 투표완료)

이제 투표매수와 투표자수와 동일합니다.

병구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용 6표

이정재 1표

박기서 29표

이창운 7표

박승목 1표

최동한 1표

이종육 1표

그런데 이중에 그 당선투표자수는 31표를 획득해야만 당선권내에 들어가게 되는데 2표 부족입니다.

그런고로 제2차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13시 45분 재투표개시)

(13시 55분 재투표완료)

○의장 박명준; 지금 46명의 투표는 끝났습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매수 46매 맞습니다.

2차투표 결과를 발표해드립니다.

박기서씨 32표

이창운씨 3표

강성용씨 9표

허현씨 1표

박마리아씨 1표

그러면 법규에 의해서 32표를 득표하신 박기서씨가 당선되었습니다.

(박수)

다음은 계속해서 정선거구 즉 서대문구와 마포구입니다.

정선거구 투표로 들어가겠는데 여기에는 투표용지 1매에 두분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투표개시)

(14시 55분 투표완료)

이제 투표매수가 46매올시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매수가 46매 부합합니다.

이제 정선거구의 개표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김봉준 12표

조양환 14표

홍사승 12표

이예행 8표

최동한 10표

장용환 2표

김덕윤 2표

황서훈 4표

강남현 5표

홍종인 6표

길정기 9표

유동준 3표

박복병 2표

김활란 1표

그래서 3분지2 득표자가 없기때문에 2차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14시 30분 투표개시)

(14시 38분 투표완료)

이제 투표인원수는 46명이 올었습니다.

이제 개표시작합니다. 투표매수도 46매 부합됩니다.

이제 정선거구의 제2차투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준 19표

홍사승 18표

최동한 16표

길정기 20표

조양환 9표

이예행 4표

홍종인 1표

강남현 2표

황서훈 1표

길익선 1표

최동준 1표

2차투표에도 역시 아직 3분지2 득표자가 나오지않았기때문에 제3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14시 45분 투표개시)

이제 투표매수는 46매올시다. 지금 곧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투표매수는 46매 부합됩니다.....

정선거구의 제3차투표결과를 발표합니다.

길정기 25표

홍사승 22표

최동한 19표

김봉준 22표

유동준 2표

이예행 1표

조양환 1표입니다.

그러면 요번 길정기씨는 25표로 당선된것을 발표합니다.

이제 동점수를 획득한 홍사승씨와 김봉준씨가 각 22표를 획득했는데 역시 아마 지금 추천에 의해서 결정하는수밖에 없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이의없습니다.」 「관례에 의해서 추천해요.」 하는이있음)

그러면 아까 추천방식에 의지해서 추천하겠습니다.

(「의장」 하는이있음)

○김동순 의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추천에 전례에 의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사람이 해야할텐데 지금 대략 약식으로는 한다고하지만 요즘 행정소송이 유행되는때의 나중에 낙선자가 이의를 제기할때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것이니 다음날 이상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권화자」 라는 여자의 손으로 추천한다는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종소」 하는이있음)

○의장 박명준; 이의없습니까……

(「네」 하는이있음)

(「추첨피명자」 「권화자」 가 추천을함)

김봉준씨! 그러면 김봉준씨 당선을 선포합니다.

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기로 하고 내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립니다.

1. 재산취득에 관한건(독립문및도림국민학교건)
2. 서울특별시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조례제정의건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재무조례제정에 관한건
4. 서울농과대학신축교사기부채납에 관한건 이상이올시다.

오늘은 일로서 산회합니다.

(15시 20분 산회)
